

마음 다루기 허공의 주인공

공중에 달이 없다면 어찌 천강에 달을 얻으리오!

| 백봉 김기추 |

분명하게 있는 것을, 찾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 말합니다(편집자 주).



애오라지 부처님이 법의(法衣)를 입으심은 참으로 입으심일까?
그러나 법의를 입으시지 않음도 아니며, 바리(바루)를 드심은
참으로 드심일까? 그러나 바리를 드시지 않음도 아니며, 사위의 큰
성안으로 들어가심은 들어가심일까? 그러나 사위의 큰 성안으로 들어
가지지 않음도 아니고, 그러나 밥을 비심은 참으로 비심일까?

참!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밥을 비시지 않음도 아니고 본
곳[本處]으로 돌아오심은 참말로 돌아오심일까? 그러나 본곳으로 돌
아오시지 않음도 아니고, 진지를 마치심은 참으로 마치심일까? 그러
나 진지를 마치시지 않음도 아니며, 의발을 걷으심은 참말로 걷으심
일까? 그러나 의발을 걷으시지 않음도 아니며, 발을 씻으심은 참으로
씻으심일까? 그러나 발을 씻으시지 않음도 아니며, 자리를 베풀어 앉
으심은 참으로 앉으심일까? 그러나 자리를 베풀어 앉으시지 않음도
아님이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를 보시는데 참으로 나를 보시나요? 그러나
보지 않음도 아니에요. 여기 한마디 합니다.

약무공중월(若無空中月)이면
만약 공중에 달이 없다면,
안득천강월(安得千江月)이리요
어찌 천강에 달을 얻으리오!

여러분이 참말로 여러분의 그 자리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참이니 뵈
이니 이거 다 없습니다. 안다 모른다 이거 다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참말로 본래의 소식자리, 그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이

것이 겁나다면 굉장히 겁난 것입니다만 늘 쓰고 있거든요. 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본래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씁니다.

본래 그 자리가 없으면 다른 것도 써지질 않아요. 알아지질 않아요. 본래의 그 자리가 때문에 그런 건데, 본래의 그 자리로 본다면 한 십분 잠을 자도 한 천년이나 만년 잔거나 한 가지, 여기서 주무신 거 한 십분 정도… 왜 그러느냐? 잠을 자도 내가 자는 것이고 잠을 안 자도 내가 안 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참말로 본래의 소식을 확실히 알아낸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요. 더 알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요.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만약 더 안다면, 더 알았다 합니다. 또 그 앞소식이 있어요. 이 자리는 이거다 저거다 언사가 딱 끊어진 자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림선원에 와서 참선을 하신 것. 모든 것 사랑분별(思量分別)이 딱 끊어진 자리를 알기 위해 고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실은 참선에 대해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좋은 책들 많지 않습니까? 실은 이거 문자로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중의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공부하는 중의 공부하는 분으로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 문자 떠난 자리에 있습니다. 별별 문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문자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떠난 소식을 여러분들 한 가지씩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으로서의 내다.” 이 말입니다. 허공,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명자(名字)는 있어요. 그건 중생들이 붙인 명자지 허공 자체가 붙인 것도 아닙니다.

허공 그 자체. 여러분의 앞소식 본래의 소식, 이젠 내 말입니다. 다른 거 말할 그것이 없어요. 이전 어른들도 여기에 대해 말을 많이 했

습니다. 현대 제일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모든 것의 앞소식, 허공의 앞소식, 지혜 하면 지혜의 앞소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래의 소식이다, 이런 말을 붙여 봅니다. 이런 말을 붙여보는데 본래의 그 당처, 인간의 그 앞소식, 진짜 나의 소식은, 나는 할 수 없이 소식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나중에 습관이 됐습니다. 이거 찾아내라면 못 찾습니다. 못 찾는데 못 찾으니까 찾고도 남은 것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다 말이죠.

본래의 소식, 본래의 뒤. 좌우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 다른 걸 보기도 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 다른 걸 듣기도 하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 말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싸움도 하고 속기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있는데 이걸 찾으려고 하니, 천년만년 찾아도 안 되는 겁니다.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끝) 

- 이 글은 『허공의 주인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백봉 김기추** | 1908년 음력 2월 2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 항일 민족운동을 벌이다 부산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하고, 이후 만주 땅에서 '불령조선인(不逞朝鮮人)'으로 감시를 받다가 해방을 맞았다. 광복 후에는 교육 사업을 하다 오십이 넘는 나이에 불교를 만나 '무(無)자 화두를 들고 정진하다가 1964년 1월에 크게 깨달았다. 이후 속가에 머물면서 거사풍(居士風) 불교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상승의 선(禪) 법문을 설했다. 1985년 7월 27일 지리산 산청 보림선원에서 마지막 하계수련대회를 주재할 때 '여하시최초구(如何是最初句: 무엇이 최초의 구절인가?)'란 글을 걸게 하고는 8월 2일 최후 설법을 한 후 향년 78세로 입적했다. 저서에 『금강경 강송』, 『유마경 대강론』, 『선문염송 요론』(15권), 『절대성과 상대성』, 『백봉 선시집』 등이 있다.

허공의 주인공 한국의 유마 백봉거사 선어록

저자 전근홍 | 출판사 비움과소통 | 정가 10,000원



백봉거사의 선어록을 담은 『허공의 주인공』. 이 책은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혔던 청봉 합장이 백봉거사의 설법과 수행 방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직접 듣고 느꼈던 법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백봉 거사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자세히, 반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백봉 거사가 어떻게 제자를 지도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등등 저자가 직접 보고 들은 진솔한 수행담이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아울러 백봉 거사 문하 제자들의 깊은 불연(佛緣)과 간절한 발심,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재가 수행자의 각고의 노력, 스승의 인간적 면모와 제자들의 고뇌, 그리고 스승의 지도·점검에 대한 가감 없는 기록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